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ORPHANS OF THE TIDE

가제 : 바다 도시의 고아들

저자 : Struan Murray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Children

발행일: 2020년 봄

분량 : 약 23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원고 공개 24시간 만에 수십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pre-empt) /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번역 계약 체결(pre-empt)

* 2018 바스 어린이 소설 상(Bath Children's Novel Award) 수상작

바다가 모든 육지를 삼켜버린 세상, 유일하게 남은 도시조차 절반은 물에 잠겨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까지 파도가 내려치고 조개껍데기며 해초가 벽에서 떨어질 날이 없는 위태로운 도시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대상은 따로 있다. 바로 '에너미'라 불리는 이름도, 정체도 알 수 없는 파괴자들이다. 고대부터 존재한 악마로 알려진 에너미는 술한 전설과 신화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들이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이유는, 인간의 몸에 들어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차지하고 인간이 만든 도시와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이다. 에너미에게 붙들린 인간은 '베슬'로 불리고, 평범한 사람들 틈에 섞여 때가 올 때까지 숨죽인 채 살아가는 베슬을 가려내고 찾아내기 위한 도시의 노력은 갈수록 험악하고 거칠어진다. '조사관'이라 불리는 도시 특별 조직에서는 점점 더 포악한 방법으로 베슬을 찾기 위해 쥐잡듯 도시 곳곳을 파헤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자는 공개적으로 처형한다. 거친 바다에 휩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미와 그 에너미가 숨어 있는 베슬이 언제, 어디서 막강한 파괴 본능을 발휘할지 모르는 도시에 어느 날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고, 도시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가 서서히 시작된다.

점점 높아지는 해수면을 피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남은 도시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파도가 조금 약해질 때마다 한 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건물들과 도로가 드러나곤 했다. 커다란 고래가 나타난 것도 절벽 바로 아래, 성 바톨로뮤 성당의 지붕이었다. 네 개의 석상이 모서리마다 우뚝 서 있는 성당 지붕에 파도에 휩쓸려 온 것으로 보이는 큰 고래가 석상 중 하나에 찢린 채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절벽 가장자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발견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늘 그럴듯 목사들은 웅성대는 사람들 틈을 돌아다니며 "저건 분명 베슬이다! 에너미가 다시 나타났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도 출동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

라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던 그 때, 후줄근한 옷을 걸친 소녀가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선다.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큰 명성을 누렸던 유능한 발명가 한나의 외동딸 엘리였다.

멀리서 보면 영락 없는 사내아이처럼 험렁한 바지를 걸치고 금빛 머리카락은 하나도 정돈이 안 된 지저분한 차림으로 나타난 엘리는 서슴없이 고래를 향해 다가선다. 저대로 고래가 죽으면 뱃속에서 유독한 가스가 형성되고 뽕,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엄마가 남기고 간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고아원 친구, 애나의 도움으로 고래잡이들이 사용하는 칼을 들고 절벽을 내려간 엘리는 고래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말로만 듣던 고래의 노랫소리였다. 사람들은 목사의 외침처럼 흑시라도 고래에 사악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며 엘리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한다. 눈을 꼭 감은 채 희미하게 노래하는 고래를 가만히 지켜보던 엘리는 그 소리가 완전히 멈추자, 작은 손으로 큰 고래를 토닥이며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긴 작대기 끝에 달린 날카로운 칼날을 고래의 하안 배 중앙에 갖다 대고, 열세 살 작은 체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 모아 고래 배를 길게 가르다. 속에 차오를 가스가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만 칼집을 내고 돌아서려던 엘리는 절벽 위에서 사람들이 질러대는 비명 소리에 깜짝 놀란다. 갈라진 고래 뱃속에서, 작은 손 하나가 나온 것이다. 가느다란 손목까지 빠져 나온 그 손은 덩석, 엘리의 발목을 붙들었다.

기겁한 엘리는 뒤로 물러섰다가 일단 구해주기로 결심하고, 두 손으로 그 가느다란 손목을 단단히 쥔다. 사람들은 정말로 에너지가 나타났다고 고함치고 누군가는 울음까지 터뜨린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소문을 듣고 조사관이 곧 들이닥칠 것을 예상한 엘리는 서둘러 고래 뱃속에 있는 존재를 끌어낸다. 역겨운 냄새와 함께 고래 피를 뒤집어쓰고 발가벗은 몸으로 빠져 나온 사람은 엘리 또래 소년이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소년은 엘리의 도움으로 겨우 호흡을 되찾고 눈을 뜬다. 죽은 고래처럼 깊고 진한 청회색의 눈을 가진 그 아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엘리는 기억을 다 잃은 듯한 소년의 황망한 눈빛을 보면서, 절대 베슬이나 에너지일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예상대로, 현장에 도착한 조사관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다니, 에너지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 조사관은 그 자리에서 소년을 체포한다. 저지하려던 엘리는 거칠게 떠밀려 물에 빠지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무조건 저 무고한 소년을 구해내고 말리라 다짐한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손재주와 비상한 두뇌로 사람들에게 인정 받았던 엄마의 특별한 능력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엘리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은 엘리의 삶도, 도시의 미래도 바꿔 놓을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과연 엘리는 무자비한 조사관들 손에서 소년을 구할 수 있을까? 첫 장부터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흡입력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트루언 머레이(Struan Murray)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에딘버러에서 자랐다. 유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FRIENDROID
가제 : 로봇 친구
저자 : M.M.Vaughan
출판사: Simon & Shuster
발행일: 2019년 3월 26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10세 이상 소설



*** 독일 판권 계약 체결 / 안드로이드와 평범한 소년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따뜻한 이야기**

친구가 하나도 없는 소년과 친구 숫자는 물론 100 퍼센트 기준으로 각각 자신과 얼마나 친한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괴짜 소년은 친해질 수 있을까? 게임 외에 다른 일에는 별로 흥미도 없고 학교에서 늘 외톨이로 지내던 대니는 유명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품만 입고 다니고 같은 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항상 눈에 띄는 유명한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새 전학생이 자신의 '베스트프렌드'가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뉴욕에서 살다가 애쉬랜드로 전학 온 에릭 역시 꼬박 꼬박 일기에 친구 '현황'을 기록하면서도 100 퍼센트 친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을 뿐, 우연히 만난 대니가 바로 그런 친구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서로의 공통점 하나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형제 같은 친구가 된다. 하지만 대니와 에릭이 점점 가까워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왜 에릭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짐 없이 치과에 갈까? 그것도 매번 엄마아빠와 같이? 에릭의 치아는 충치는커녕 깨진 곳 하나 없이 완벽한데? 무엇보다 왜 에릭은 치과 진료실에서 무슨 치료를 어떻게 받고 나왔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까? 대니는 이런 사실들과 함께, 에릭이 농담을 전혀 할 줄 모르고, 또래 친구들은 유치하다고 기겁하는 유아 수준의 농담을 던져야 배를 잡고 웃는다는 사실도 알아챈다. 몇 달 뒤, 에릭의 이상한 행동과 생활방식에 관한 비밀이 밝혀진 후에야 대니는 유일한 친구의 특별함을 깨닫는다. 에릭은 사람이 아닌, 안드로이드였던 것이다.

에릭은 자신이 사람과 꼭 빼 닮은 로봇인 안드로이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에릭에게도 엄마아빠가 있었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죽은 여동생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친척과 사촌들까지 있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에릭 스스로도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생기곤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대한 트럭이 집 앞에 도착하면 엄마와 아빠, 에릭 앞으로 온 택배 상자가 전해지는데 그 안에는 아직 시내 상점에 진열되지도 않은 옷가지며 신발, 액세서리가 가득했다. 뉴욕의 유명한 잡지사에서 일하는 마틴 삼촌이 협찬을 받아 신제품 리뷰를 마치고 나면 다 선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그것도 에릭이 입고 신고 쓰기에 딱 맞는 사이즈의 의류만 골라서 리뷰한다는 사실이 좀 의아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은 에릭이 신고 오는 신상 운동화며 옷에 관심이 많았고 에릭은 그런 관심이 좋았다. 친구를 많이 사

꾸는 것, 인기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애쉬랜드로 이사를 온 뒤 부모님이 개최한 자선 행사에서 대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대니에게 그 날 얼굴도 가물가물한 아빠라는 사람이 전화만 걸지 않았더라면 에릭과 친구가 되지도 못했으리라. 경마에 빠져 여섯 살 때 집을 나간 지 오래인 아빠와 잠깐 통화한 후 잔뜩 기분이 상한 에릭을 보면서, 엄마는 새로 이사온 집 자선행사에 같이 가자고 했다. 혼자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한 사람도 못 사귀고 늘 혼자서만 노는 것이 엄마에게는 큰 걱정거리였다. 사실 대니가 처음부터 외톨이였던 건 아니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대니는 늘 남이 주는 옷을 얻어 입는 것에 익숙했고 헌 옷이든 새 옷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전, 어느 집에서 얻어온 옷이라며 엄마가 건넌 재킷을 걸치고 학교에 갔던 날 하필 그 옷이 같은 학년인 루크라는 친구의 여동생이 입던 옷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학교에 놀림감이 되고 말았다. 루크와 짓궂은 그의 친구들은 신데렐라라며 '대니엘라'라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놀려댔고, 결국 참다 못한 대니는 그 못된 우리들 중 한 명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 일로 대니는 정학 처분을 받고,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대니를 놀리지 않았지만 그 때부터 누구도 대니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자선 행사장에 도착한 대니는 루크 무리와 어울려 지내는 새 전학생, 에릭이 바로 그 행사를 연 부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엄마는 어떻게든 대니가 친구를 사귀게 하려고 억지로 에릭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대니는 어쩔 수 없이 행사 준비 중인 에릭을 도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영 어색했던 두 사람의 대화는 에릭이 대니가 신은 운동화를 보면서 무슨 브랜드냐고 묻자 한층 더 험악해진다. 민감해진 대니는 벌컥 화를 내지만, 오히려 그런 자신을 보며 더 놀라는 에릭의 반응에 당황한다. 혼란스러웠지만 에릭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음이 풀린 대니는 난생 처음으로, 에릭과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기분 좋은 예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우정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학교에서 남학생 전체가 흠모하는 미모의 여교사, 레이크 선생님은 방과 후 에릭을 따로 불러서 대니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조언한다. 루크, 타일러 같은 친구들과 계속 가까이 지내고, 심지어 이름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남학생까지 거론하면서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니 적극적으로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한다. 왜 학교 선생님이 친구를 골라 사귀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 에릭은 의아했고, 알았다고 했지만 그 말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사실을 똑같이 느낀 대니와 에릭, 그러나 에릭이 안드로이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물론, 세계 최초의 아동 로봇으로 개발된 에릭의 생사까지 위기에 처한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두 소년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다.

<저자 소개>

M.M. 본(M.M. Vaughan)은 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8년째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The Ability』, 『SIX』 등이 있다.